

6. 요와 금: 서만주 거란선비에 이어 동만주 여진족의 등장

Motivational Episode

요(遼) 시조 아보기(耶律阿保機 r.907-26)는 신장이 9척이었으며, 흔덕근(痕德堇 r.901-6) 카간 아래서 실위(室韋), 해(奚), 여직(女直) 등을 계속 공략하면서 군국대사를 총괄했었다(總知軍國事). 요사에 의하면 태조 아보기는 모친이 해가 품 안으로 들어 오는 태몽 꿈을 꾸고 낳았다(母夢日墮懷中有娠). 북위서(魏書) 본기에 의하면 태조 탁발규의 모친은 실내에서 햇빛이 솟아나는 꿈을 꾸 다음 잉태를 했고(夢日出室內 焮然有感), 열전(列傳)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는 모친이 방에 있던 중, 햇빛이 따라와 비춘 다음 잉태를 했으며(日所照引日影 又逐旣而有孕), 주몽은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我是日子) 칭했다. 우문선비 후예인 실위 몽골족은 징기스칸이 천막 지붕 꼭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수태 되었다고 말한다. 항상 싸우면서 가까워진다고, 서만주 탁발-거란-몽골 선비족과 중부 만주 예맥족은 햇빛-수태 설화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조선의 기자(箕子)가 백성들을 팔조지교(八條之教)로 교화시켰다 한다. 요사(遼史) 예지(禮志)는 요(遼)가 본래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으며(遼本朝鮮故壤), 기자의 팔조지교 유풀을 간직했다고 말한다(箕子八條之教 流風遺俗 蓋有存者).

고려사를 본다. 925년 12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세자를 위시해 수만 호의 발해 유민이 고려로 도망을 해 왔다. 935년 11월,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r.918-43)에게 항복했다. 936년 9월, 왕건은 후백제를 멸했다. 마지막 전투에 9,500명의 말갈-돌궐 기병이 동원되었다. 993년 8월, 거란의 부마 소손녕(蕭遜寧)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 왔다. 10월, 서희(徐熙)가 외교적으로 거란 군을 물러가게 했다. [당시 요는 북송과 대치 중이라 고려에 큰 병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드디어 1004년, 요 성종(聖宗 r.982-1031)은 북중국을 대대적으로 공격해 송이 매년 은 10만 량과 비단 20만필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전연(澶淵之盟)의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1010년 11월, 성종은 친히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 와 1011년 1월 1일에 개경을 점령했으나, 퇴로가 차단 될 것을 우려해 곧 철수했다. 1015년, 거란군의 침공이 있었다. 1018년 12월, 소손녕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했으나 귀주에서 강감찬에게 궤멸 당했다. 1020년 2월, 전쟁에 진 적은 없지만, 고려 조정은 불필요한 전쟁의 거듭되는 참화를 피하기 위해 거란에 표문을 보내 번국(蕃國)을 일컫고 공물을 바치기로 했다. 한반도의 예맥족이 군사적 대결 전략에서 사대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것이다. [A.6.1.3.-4.]

거란선비(契丹鮮卑)의 범-만주 정복왕조: 요(遼 907-1125)

Eberhard(2005: 199)는 「당 왕조가 소멸했을 때, 거란족도 나름 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믿는 당 왕조 승계 후보 중 하나 이었다」고 말한다. 금사는 「요가 일어나 당을 승계했다」고 말한다.¹

서만주 거란선비는 345년에 모용 선비에게 복속된 우문선비족의 한 분파이다. 당이 멸망한 907 년, 야율(耶律) 씨족의 아보기(872-926)는 거란 부족연맹의 카간으로 선출 되었고, 916년에 황제라 칭했다. 요의 양대 지배 씨족은 야율 황제씨족과 소(蕭) 황후 씨족이었다. 5호16국(304-439) 당시에는 모용-탁발 선비족의 전연-북위 정복왕조들이 범-통구스 고구려와 힘의 균형을 이루며 공존 했었다. 하지만, 당 멸망 이후에 전개된 5대(五代 907-60) 10국(902-79) 당시의 거란선비족은, 아보기 생전인 926년에 동부 만주의 발해를 정복 하여 범-만주 (선비-통구스) 왕조를 세웠고, 둘째 아들 덕광(德光/太宗 r.926-47)이 뒤를 이어, 936년에는 사타돌궐 후진(後靺 936-46)을 도와준 대가로 북 중국 연운(燕雲) 16주를 할양 받을 수 있었다. [A.6.1.1.-A.6.1.2.]

오르도(Ordo) 부족 군대와 북면관(北面官)-남면관(南面官)의 2원 정부조직

922년경, 야율 아보기는 선발된 부족의 15세 이상 55세 미만 장정들로 “오르도”라 부르는 초 부족적 황제 직할 군대를 편성했다. 한 명의 오르도 정규 기병은 3마리의 말과 2명의 종자를 거느렸다. 즉각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요 군사력의 핵심인 오르도 기병의 총 수는 (북위의 황제 직할 군대 마찬가지로) 10여 만 명에 달했다. 오르도에 포함 되지 않고 국경 수비의 임무를 맡은 부족 병력도 10여 만에 달했었다.² 거란족 군대는 한족 밀집 지역을 피해 모두 북부 초원지대에 주둔 했다.

요는 외관상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2원(二元) 정부 조직을 유지 했다. 남쪽

¹ 金史 卷五十一 志第三十二 選舉一 遼起唐季 頗用唐進士法取人

² Wittfogel and Fêng (1949: 6-7, 510-23, 527 and 515-6), Fairbank and Goldman (1992: 113), Frank and Twitchett (1994: 22) 참조. 북송의 부필(富弼)은 “거란은 한족의 제도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한족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Tao (1983: 78) 인용. 요의 2원 통치제도를 평하는 사료가 된다.

의 북경 주변 16개 주에 살고 있는 3백만여 명의 한족들은 거란 귀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족 관리가 모두 "한족 복장"을 하고 남면관(南面官)이라는 명칭 하에 중국식 관료제(漢制)로 다스렸다. 북방에 사는 백만여 명의 거란 부족(國人)들은, 세습 귀족 관리(世官)들이 북면관(北面官)이라는 명칭 하에 모두 "거란 복장"을 하고 전통적인 부족법(國制)으로 다스렸다.³ 요 황제는 주요 북면관 대신들을 거느리고 전국을 순회 하면서 현장에서 중요 결정을 내렸다. 한족 남면관 관리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고위 관직을 가졌지만 실제 정책 결정권이 없는 행정 담당관(functionaries)들이었다.⁴

요는 황제의 자리를 포함해 조정의 정치적 직위를 부족의 귀족들이 "세습적"으로 차지하는 전통을 지켰다. 정부의 주요 관직은 세습선발 원칙(世選)에 의하여 특정 씨족 특정 가문의 자손이 세습 했다.⁵ 남면관의 한족 관리들은 귀순한 유학자, 전직 관료와 그 자제들 중에서 우선 선발했다. 988년부터는 수-당 모양 시부(詩賦) 중심의 과거시험을 통해 한족 지주 출신 협력자들을 새롭게 선발했다. 중앙정부의 고위직은 거란 귀족들이 계속 세습적으로 독점했다. 전통적으로 북 중국에는 이민족 정복 왕조에 협력하고 출세하려는 한족 지주 출신 지식인들이 얼마든지 있었다.⁶ 요 왕조는 후에 동부 만주 여진족에게 망한 것이지, 정복왕조 통치방식에 불만을 품은 한족 농민반란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⁷

소위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法難)이라는 북위 도무제(r.386-409), 북주 무제(r.560-78), 당 무종 (r.840-6), 후주 세종(r.954-9) 등의 불교 탄압도 있었지만, 북위 정복 왕조에 의해 통치이념으로 적극 수용된 불교는 수-당을 거쳐 요 왕조에 와서 전성기를 이룬다. 공식적으로 등록 된 승려의 수가 942년의 50,000명에서 1078년의 360,000명으

³ 遼史 卷五十六 志第二十五 儀衛志二 國服 會同中 太后北面臣僚國服 皇帝南面臣僚漢服
Fairbank and Goldman (1992: 113) 참조.

⁴ Twitchett and Tietze (1994: 79-80)

⁵ Twitchett and Tietze (ibid: 92), Wittfogel and Fêng (1949: 450-1, 454, 461) 참조.

⁶ Frank and Twitchett (1994: 77, 91-2), Wittfogel and Fêng (1949: 195, 435, 450-7, 461), Standen (2007: 108-16, 124, 137, 158, 168, 178) 참조.

⁷ Franke and Twitchett (1994: 39), Lorge (2005: 64) 참조.

로 증가 했다.⁸ 거란족은 북쪽 초원지역을 왕조의 정치-군사 중심으로 삼고, 자신들이 개발한 오르도와 2원-정부조직 체제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중국화 되지 않았다.⁹

거란족의 (여진-발해) 통구스족 흡수-융화 실패

거란은 발해를 무력으로 정복을 했으나, 975, 1029-30, 1116년에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다. 거란은 986년에 생(生) 여진족을 공격해 10만 명의 포로를 잡고 20만필의 말을 빼앗았다. 1026년에도 여진족에 대한 대규모 정벌이 있었다.¹⁰ 1034-44년 간에는 발해 사람들과 생 여진족의 연합 세력이 봉기를 했었고, 이를 평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벌이 필요했다.¹¹ 서만주 거란 선비족이 중동부 만주 통구스족들을 원만하게 흡수-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란은 계속되었고, 요의 국력 소모가 지속되었다. 거란선비족은 만주 대륙 대부분을 점령 했다지만 명실상부한 범-만주(선비-통구스)왕조를 세우지 못했고, 북경 주변 16주 이남의 북 중국 정복에 실패했다. [A.6.1.3.] 오히려 범-통구스 고구려와 평화 공존을 했던 탁발선비 북위보다도 북 중국의 정복 면적이 적었고, 결국 동 만주 완안부가 주도하는 생 여진족에게 멸망되었다.

금의 정복을 피해 달아난 일단의 거란 귀족들은 서방으로 계속 이동을 하여 서요 왕조(西遼/黑契丹 1124-1211)를 수립했다.¹² 다분히 몽골적인 이들 거란족이 몰려와

⁸ Wittfogel and Fêng (1949: 296) 참조.

⁹ Wittfogel and Fêng (1949: 4-5, 7, 326) 참조.

¹⁰ 遼史 卷十一 本紀 第十一 聖宗二 統和四年 [986] 討女直所獲生口十萬餘 馬二十餘萬及諸物 卷十七 本紀 第十七 聖宗八 太平六年 [1026] 入女直界 俘獲 人馬牛豕 不可勝計

¹¹ 요사는 발해인과 여진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했다. 당시 거란의 지배를 받았던 요하 주변의 여진 부족들은 숙(熟) 여진이라 불렀고, 그 외의 여진 부족들은 생(生) 여진이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당시 소위 발해 사람이란 옛 고구려 사람만을 지칭하는 셈이 된다. 요 왕조 말기 추계에 의하면, 발해인으로 분류된 인구는 22만 명의 성인 남자를 포함해 총 55만 명이었다. 거란족과 다른 부족들의 오르도 참여 비율이 40%인데 반해, 발해 성인 남자는 18%(4만 명)만 오르도에 참여했었다. Wittfogel and Fêng (1949: 56-8) 참조.

¹² Grousset (1970: 186) 참조. 서요 왕조는 발카쉬 호수 남쪽 무슬림 투르케스탄에 위치 했으며, 영토가 하미르부터 아랄해에 달하여, 카슈가르, 탈라스, 타쉬켄트 등을 포함했다. 서요는 트랜스-옥사

돌궐족을 복속시킨 것은, 100여 년 후, 징기스칸의 진짜 몽골족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Motivational Episode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황해도 평주(平州) 승려(승후)의 아들 극수(克守)가 처음으로 여진 땅에 들어가 여진 여인과 결혼해 고을(古乙太師)을 낳았고, 고을은 활라(活羅太師/景祖)를 낳았다. 극수가 바로 금나라 시조인 것이다. 금사(金史)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금 시조 함보(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가 완안부(完顏部/安出虎水) 지역에 정착했고, 여러 말갈 부족의 지도자가 되어 금 조정에 의해 생여진(生女眞) 절도사로 임명되었다고 기록된 활라(景祖/烏古迺/우쿠나이, 1021-74)는 함보의 손자가 아니라 1021년에 태어난 6대손이다. 활라의 출생 시점에서 본다면,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함보가 여진 땅으로 들어간 것이 대략 960-980년 경이 되고, 금사에 의하면 대략 900-920년 경이 된다.

당시 요 국적을 취하지 않은 흑룡강-장백산 지역의 말갈족을 생여직(生女直)이라 불렀다.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숙신(말갈)족은 청석으로 화살촉을 만들었다(靑石爲鐵). 금사에 의하면, 생여직은 그때까지 철 생산이 없었지만 이웃 나라로부터 철을 사들여 화살도 수리하고 다른 무기들도 마련했다(舊無鐵隣國有...厚買...得鐵旣多因之以修弓矢備器械). 요(遼) 사람들은 절도사를 태사(太師)라 불렀다.

활라는 핵리발(劼里鉢/世祖 b.1038 r.1074-92), 숙종(肅宗 1042-93), 영가(盈歌/穆宗 1053-1103) 형제들을 낳았다. 1102년, 요 군이 해리(海里) 토벌에 실패하고 오히려 영가(r.1094-1103)가 모병한 1,000여명의 여진병이 해리 토벌에 성공하자 이때부터 여진족은 요 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핵리발은 우야수(烏雅束/康宗 b.1061 r.1103-13)-아골타(阿骨打/太祖 1068-1123)-오걸매(吳乞買/太宗 1075-35) 형제를 낳았다. 고려사에 의하면 금 태조 아골타(r.1113-15-23)는 시조 함보의 고손(6대손의 손자가 아니라, 손자의 손자)이다. 1136년, 금 조정은 함보의 시호를 경원(景元)황제, 묘호를 시조(始祖)라 하였다.

금사에 의하면, 1114년, 아골타는 여진 갑사 3,700명으로 요군 10만을 무찔렀

니아 이란을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돌궐족의 호와리즘 제국과 서쪽의 국경을 이루었다. 몇몇 거란 부족들은 계속 서방으로 이동을 하여, 11세기 중엽, 우랄과 볼가강 지역에 이르러, 당시 러시아 초원을 지배하던 킵차크 돌궐족 지배층에 합류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 요 사람들은 여진병이 1만 명을 넘게 되면 천하무적일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여진 갑병(甲兵)이 최초로 1만 명에 달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노비와 부곡(部曲)은 양민으로 승격시켜주었다. 1115년 1월, 아골타는 대금 황제에 즉위했다. 11월, 2만의 병사를 가지고 요 황제가 지휘하는 70만 대군을 궤멸시켰다. 금사가 요 군의 숫자를 엄청 과장해서 기록을 한 것 같다.

1117년 3월, 아골타는 고려 조정에 글을 보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하여 조심스럽게 섬겨 왔는데(高麗爲父母之邦 小心事之), 이제 거란을 섬멸했으니 형제의 의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관계를 가지기 바란다.」 1119년 8월, 고려 조정이 금 나라에 보낸 국서에 “귀국의 근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彼源發乎吾土)”는 말이 있어 아골타가 수령을 거부했다. 고려사 기록이다. [A.6.2.2.-3.]

1123년, 아골타가 병으로 죽자 동생 오걸매(吳乞買/太宗 r.1123-35)가 제위를 승계했다. 1125년 2월, 요 황제를 생포했다. 1126년 1월, 송의 변경을 포위했다. 4월, 고려 조정은 금에 “신(臣)”이라 칭하며 표문을 보냈다. 금 태종은 답서를 보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以小事大) 것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책이다(社稷之圖). 무력으로 위협하지도 않았고 옥과 비단(玉帛)으로 회유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왔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 해 11월에 변경이 함락되었고, 송 황제가 투항했다.

동만주 여진족의 등장: 범-만주 정복왕조 금 (1115-1234)

400년경 이후 고구려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켜 범-통구스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발해는 애당초 고구려 유민과 속말말갈 부족이 연합해 세운 범-통구스 국가였다. 금 왕조의 등장은 역사상 최초로 동 만주 말갈-여진족 국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거란 요에 복속되지 않았던 생 여진족의 완안부 출신인 아골타(1068-1123)는, 발해 유민을 회유-흡수하기 위해, 여진족과 발해인은 본래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천명했고, 금사는 아예 첫 머리에 완안부 시조 함보가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을 했다.¹³ 거란 군대는 만주 내에서 궤멸되었고, 금 태종(1075-1135)은 1127년에 북송 수도 개봉을 포함한 전 북중국을 정복했다. [A.6.2.]

¹³ 金史 卷一 本紀第一 世紀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兄留高麗不肯從...始祖居完顏部僕幹水之涯 ...太祖...招諭渤海人曰 女直渤海本同一家

여진족의 병민일치 "맹안-모우케" 사회-군사제도

아구다는 1114년에 병민일치 맹안-모우케(猛安謀克) 사회-군사 조직을 제도적으로 완비했다. 300호를 1 모우케로 하여 100명의 정규 기병과 100명의 종자를 제공하게 하고, 7-10개의 모우케를 1맹안으로 하여 그 천부장(千夫長)은 세습을 하는 것이었다. 여진족에 항복한 부족들도 맹안-모우케 편제를 만들어 그들의 세습 지도자가 거느리게 했다. 여진족은 삼림족이었지만 유목민에 손색없는 기병을 보유했다. 북 중국의 맹안-모우케 둔전 군호들은 한족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농토와 노예들을 배정 받았고, 성책을 돌려 한족들과 분리되어 거주했다.¹⁴

이한치한: 중앙정부 고위직만을 여진 귀족이 독점

금 역시 북 중국 지역은 한족 관리들을 통해 중국식 관료제도로 다스리고, 기타 지역의 비 한족들은 부족 조직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스렸다. 하지만 여진족은 모두 맹안-모우케 병민일체 조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요와 같이 (북면관-남면관) 2원-정부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조정의 고위직만을 여진족 세습귀족들이 독차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족을 통치하는 요의 정부조직과 한족 관료들을 대부분 그대로 물려받았으나, 1123-4년부터는 새로 한족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¹⁵ 정복 면적이 적었던 요나, 한족을 철저하게 불신했던 원 보다는 과거시험을 통한 금의 관료 선발 비중이 훨씬 컸었다.

여진족은 요의 통치를 받았던 연운과 요동 지역의 변방 한족을 선호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시부 중심의 진사시험을 보게 한 반면, 새로 정복한 중원의 한족

¹⁴ 1183년의 호구 조사에 의하면, 616만 명의 인구가 62만호, 202 맹안, 1,878 모우케를 구성 했다. 총 인구 중 135만 명은 노예였다. Franke and Twitchett (1994: 273-6) 인용. Crossley (1997: 26-29), Tao (1976: 6-11, 22, 51), Hsiao (1978: 8-9, 29), Fairbank and Goldman (1992: 115) 참조.

¹⁵ Wittfogel and Fêng (1949: 8, 462), Franke and Twitchett (1994: 25, 35, 270-3), Franke (1972: 8), Tao (1976: 52-8, 61-4, 66, 117) 참고.

은 까다롭게 유교 경전 중심의 시험을 보게 했고, 합격자 수도 제한했다.¹⁶ "일반 농민을 직접 상대하는 하급 관리는 한족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멩안-모우케 주둔 지역을 제외하면 한족 농민이 여진족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¹⁷

1173년에 여진족을 위한 간단한 (여진어) 진사 시험이 도입되었지만, 여진 세습 귀족들은, 과거 시험에 구애를 받지 않고, 중앙정부 고위직을 모두 독차지했다. 1193년 현재, 총 11,499명의 금 정부 관료 중 여진족이 4,705명(41%)이었고, 208명의 여진족 고위 관리 중 26명만 진사 출신이었다.¹⁸ 한족은 대신이라는 사람들조차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1247년에 쿠빌라이 칸이, "요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금은 유교적 한족 관리들 때문에 망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장덕휘에게 물었더니, 그는 "요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금의 경우를 보면 여진족 장군들과 세습 귀족들이 군국 대사를 모두 결정하고, 유교적인 한족 관리들은 전체의 60%도 안되었으며, 그마저 모두 하급 서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금 멸망에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¹⁹

요-금에 조공을 바치는 한족 송 왕조: 한족 사대부가 정복왕조 세습 귀족을 대체

중국 역사상 "1127년"은 한족 왕조가 정복왕조에 의해 ("317년" 이후 810년 만에) 두 번째로 중원으로부터 쫓겨난 사건을 의미한다. 양자강 남쪽 항주에 남송의 새 수도가 세워졌다. 1141년, 송 조정은 회수(淮水) 이북의 전 지역을 정식으로 떼어주고, 금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신속(臣屬)하기로 서약했다.²⁰

¹⁶ Tao (1976: 52-8) 참조.

¹⁷ Frank and Twitchett (1994: 35) 참조.

¹⁸ Franke and Twitchett (1994: 270-3) 참조.

¹⁹ 元史 卷一百六十三 列傳 第五十 張德輝...世祖...或云 遼以釋廢 金以儒亡 有諸 對曰 遼事臣未周知 金季乃所親睹 宰執中雖用一二儒臣 餘皆武弁世爵 及論軍國大事 又不使預聞 大抵以儒進者三十之一 國之存亡 自有任其責者 儒何咎焉 Tao(1976: 92-3)는 한족 관리의 비중을 40%라고 번역 했지만, Franke and Twitchett (1994: 35, 270)는 59%라 말한다.

²⁰ 1141년의 소흥화의(宋紹興11年和議/金皇統元年)는, 남송이 금에게 "자손 대대로 신하의 예의를 지키며," 동쪽으로는 회수 중류, 서쪽으로는 대산관(陝西 大散關)을 경계로 하고, 매년 은 25만량, 비단 25만필을 바친다는 내용 이다. 翦伯贊 (1990: 66-7), Jagchid and Symons (1989: 134-5) 참조.

한족 송-명 조정에서는 과거제도가 관료 임용의 핵심 경로가 되면서, 정복왕조의 상무적 세습귀족 지배층을 과거 출신 한족 사대부(士大夫)가 대체했다.²¹ 북송은 수-당 때 과거 응시자격의 필수조건이었던 지방관의 추천 요건을 없앴다.²² 송 대의 진사 시험도 당대 모양 현란한 비유와 다양한 인용을 구사하게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산체문(散體文)으로 작성하는 유학 전반에 대한 책론(儒學策論/史論) 비중이 커졌다. 지주와 강남의 부유한 상인의 자제들처럼, 10년 이상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만 있다면, 출신 근본과는 관계 없이, 과거시험에서 부과하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여하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다. 현실 정책 문제해결 능력과 관련이 없는, 교양(文史) 중심의 특이한 능력 사회가 된 것이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대지주-호족은 요역 우면특권(優免特權)을 누리는 사족(士族)이 되었다.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하지만, 북송에서 시작되고 남송에서 완성된 정주학(程朱學 Neo-Confucianism)에서 강조하는 이(理)의 구체화된 내용은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도덕, 관료적 통치질서, 신분-계급적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따르는 것이었다. 즉, 천자가 한족이던 이민족이던 정점에 모시면서, 심성수양을 통해 명분론적인 질서에 맞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의 실현이며,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결과적으로, 한족뿐 아니라 정복왕조 통치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신 유학은, 북송-남송 300여 년의 철학 사상뿐 아니라, (朱熹가 주해-주석한 四書 중심의) 과거제도를 통해 명칭의 공인된 유교 사상체계와 통치도구의 지배이념이 되었다.²³

8세기 후반에 균전-부병제를 대체한 고용병(mercenary) 제도는 한족 송-명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북송 초기부터 면세-면역(免役)의 특권을 누려오던 신흥 사족출신 관료와 전통적인 대지주 호족들의 토지 점유가 급증했기 때문에, 굶주리는 농민

²¹ 金諍(2002: 79)은 송대 이후 한족 중국의 정치적 특징을, "하나의 계층으로서의 세습귀족의 존재가 배제됨으로써, 전제적 황권이 전체 지주계급과 결합되는 것"이라 말한다.

²² Franke (1972: 6-7) 참조. 천민은 계속 응시 자격이 없었다. 북송 때 진사 급제자 수가 급격히 늘어, 관원 수가 필요이상 과다해지고, 관직 발령 대기자 수가 늘었다.

²³ 불교 선종(禪宗)의 영향을 받은 왕수인(王守仁 1472-1538)은, 이(理, 物理)는 마음 속에 있으며(心即理), 심(良知)의 행(行, 實踐)은 지의 완성이라는 주관 유심주의를 주창했다. 양명학(陽明學)이 기존의 빈부귀천-사농공상 계층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전제군주 체제를 공격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자, 상인과 수공업자 등 서민층을 제외한 사대부와 통치자들에 의해 이단시 되어 박해를 받았다.

과 (송 때 20 만에서 120만으로 급증하고, 명 때 180만여 명에 달했던) 부랑자들을 군대에 흡수해 농민 반란을 막아 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문관 우위의 송 왕조에서, 군대는 외적의 침략을 막는 전투 병력이라기보다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생충 존재로 퇴화했다. 고용병의 유지 비용은 국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진족의 부족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여진족도 불교를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자신들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고, 수도에 여진어 학교를 만들고, 한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등 자신들의 종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²⁴ 고려사 절요는 완안부 시조 함보가 여진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고려 평주에서 승려 노릇을 했었다고 말한다. 국가가 불교를 엄격히 감독하는 동시에, 황제들이 불교 사찰에 거액을 헌납 하여 귀족들이 본받게 했다.²⁵ 세종(r.1161-89)은 귀족들에게 일정 기간 수도를 떠나 내몽골 혹은 만주 땅에 천막을 치고 혹독한 생활로 단련을 하면서, 말 타고 활 쏘기를 연마하도록 했다. 1187년에는 여진족의 한족 복장 착용을 금지 했다. “세종의 실험은 성공적은 아니었지만, 후에 중국대륙을 통치 하게 되는 만주족 황제들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경고도 되었다.”²⁶ 장종(r.1189-1208) 역시 여진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한복 착용을 금지하며, 여진 전통의 제사풍속을 엄수하고, 여진족 진사 과거 에서 궁술을 시험하도록 했다. 북 중국 주둔 여진 둔전 군호와 한족 사이의 혼인관계는 거의 없었다.²⁷

정복자들은 2원 통치제도를 통해 자기들 자신의 중국화를 방지하고 부족 전통을 계속 지키려 노력했지만, 한족은 그들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허용했기 때문

²⁴ Franke and Twitchett (1994: 31-2, 40), Fairbank and Goldman (1992: 115), Eberhard (1965: 135) 참조. 여진족은 거란 문자를 약간 변형시켜 자신들의 말을 기록했다. Crossley (1997: 21) 참조.

²⁵ Tao (1976: 13), Frank and Twitchett (1994: 313-4) 참조.

高麗史節要 乙未十年 [1115] 昔我平州僧今俊 透入女真 居阿之古村 是爲金之先 或曰平州僧今幸之子克守 初入女真

²⁶ Crossley(1997: 23) 인용. Wittfogel and Fêng (1949: 8), Tao (1976: 69, 71, 76-8, 85), Elliott (2001: 276-7) 참조.

²⁷ Tao (1976: 29 and 47) 참조.

에 중국 문화의 전통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금의 서만주 거란족 흡수-융화 실패

거란족은 1160-2년에 반란을 일으켜, 금 나라 안의 가축을 거의 다 죽여버렸다 한다. 13세기 초, 몽골이 침공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을 얻고자 거란족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몽골군이 1212 년과 1215년에 잠시 동경(요양)을 점령했을 때에도 거란족은 반란을 일으켰다. 몽골군이 1215년에 연경을, 1233년에 변경을 함락시키고, 금 조정 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갈 때, 금나라 군대에 속했던 거란 부족들은 대부분 몽골 편으로 넘어가 여진족과 싸웠다. 동부 만주 여진족은 서부 만주 거란족을 만주 본토에서 멸망시킨 다음 제대로 흡수-융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금 왕조 역시 진정한 의미의 범-만주(선비-통구스) 정복왕조를 수립하지 못했고, 회수 이복의 북 중국 만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후에 몽골족은 (자신들과 동일한 선비 계통인) 거란족을 완전히 흡수 융합시키고, 전 유라시아 대륙에 산재한 돌궐족들을 포섭하여 Pax Mongolica를 달성했고, 만주족은 (거란족을 흡수한) 몽골족을 포섭하고 동업자로 만들어 Pax-Manjurica를 달성한다.

²⁸ Franke and Twitchett (1994: 241, 244, 281, 293, 352, 358) 참조.

Appendix 6.1. 우문선비(鮮卑) 후예인 거란족의 요(遼)

A.6.1.1. 당 왕조의 쇠망

지중해, 북 아프리카, 동 아시아 전역에 걸쳐, 300-400년 사이와 800년을 전후해서 두 차례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관개시설에 의존해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들 중 많은 곳이 장기간 가뭄의 결과로 유기되었다.²⁹ 당나라의 쇠락과 멸망은 8세기 중엽에 시작된다. 현종 (713-55) 치하의 당나라는 웅장한 위엄과 번영을 과시했지만, 당시 위구르의 카간들은 당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비단과 공물들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³⁰ 선비족 과 돌궐족의 혼혈인 안록산은 동북 변방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가 755년에 반란을 일으켜 낙양을 점령하고 756년에 스스로 대연(大燕)의 황제라 칭하였다. 757년에 안록산의 난을 진압 해준 위구르는 당 나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동맹국이 되었다. 반란은 763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 당 나라의 중앙 권력은 회복될 수가 없었다. 위구르 제국이 840년에 보다 야만적인 키르기스 돌궐 족에게 멸망 당했다. 당 나라는 보호자를 잃고 명맥 만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자 그대로 와해되었다.³¹ 924년에 키르기스 돌궐족을 예니세이 초원지대로 쫓아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만주의 거란족이었다.

A.6.1.2. 서 만주 왕조의 승계

야율(耶律) 부족의 지도자 아보기(阿保機)는 10개의 거란 부족들을 통합하여 연맹체를 만들고, 요서의 초원 지대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요하 유역의 몇 개의 도시를 장악 함으로서 요 왕조(907-1125)의 기초를 닦았다.³² 거란족의 핵심 본거지는 요서의 초원지대 특히 시라무렌 강 유역에 위치했었다. 거란족은 바로 이 장소에 상경(上京)과 중경(中京)을 세웠고, 요하(遼河)의 강 명칭을 취해 그들 왕조의 이름을 지었다.³³ 아보기는 죽기 바로 전 해인 926년에 발해를 정복하였다. 중

²⁹ Lamb (1995: 156-69)

³⁰ 630년에 당 태종에 의해 멸망 당한 동 돌궐은 682년에 전통적인 칸 제국을 재건하였다. 서 돌궐도 당나라 조정이 임명한 칸에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되찾았다. 이후 돌궐족 내부에 내란이 일어나 신복(臣服)하던 부족 하나가 동 돌궐 제국을 장악하고, 같은 오르곤강 상류지역에 위구르 돌궐(744-840) 제국을 수립했다. 돌궐 제국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돌궐 제국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한다.

³¹ Barfield (1989: 151, 166)

³² 5세기 중엽부터 거란족들은 오늘날의 열하 인근 지역인 요하 서쪽을 점거하였다. 696년, 거란족은 산해관으로 내려와 북경 주변 평야를 공격하였다. 측천무후가 동 돌궐의 카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동 돌궐은 거란족을 철저히 쳐 부수어 200년 이상 북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³³ Janhunen (1996: 145) 참조. 거란족은 반 유목민으로, 어느 정도는 농작물 (특히 수수) 재배에 의존하였다. Fairbank and Goldman (1992: 113) 참조.

세 유럽인들이 북 중국을 카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거란이라는 명칭에서 비롯한 것이다. 요는 만주, 몽골, 그리고 북 중국의 일부를 정복하여, 대동(大同)에는 서경(西京)을, 오늘날 북경 이라고 부르는 지역에는 남경(南京)을 설치했다.

A.6.1.3. “한족” 당 나라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송(宋)

당 멸망 이후 전개된 북 중국에서의 오대(五代 907-60), 중부-남부 중국에서의 십국(十國 902-79) 상황은 후한 멸망 이후에 전개된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304-439) 상황과 구조적으로 흡사하다. 특히 317년에 서진이 남쪽으로 달아나고, 439년에 탁발 북위(北魏)에 의해 북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까지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³⁴ 북 중국에서는 대부분 비 한족 출신의 장군들이 계속 황제 자리를 차지 한데 반해, 남쪽은 한족 제후들이 분할 점거 하였다. “그러나 5호 16국 당시에는 온갖 명칭의 선비족 연(燕) 나라가 고구려와 힘의 균형을 이루며 대치했었지만, 5대 10국 당시의 거란은 재빨리 (926년에) 동부 만주의 발해를 정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사 이래 최초로 만주대륙 전체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단일 국가에 의해 통일된 것이었다.”³⁵

북 중국에서는 5개의 왕조가 빠른 속도로 교체되다가, 960년에 와서 후주(後周)의 금군(禁軍) 총사령관인 조광윤(宋太祖 趙匡胤)이 부하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다. 송 태조(960-76)의 선조들은 오랜 기간 황제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람들 밑에서 장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조광윤은 젊은 시절부터 승마와 궁술에 매우 능했다.

거란은 송과 적대적인 대치 상태를 지속하다가, 1005년에 송나라가 매년 20만 필의 비단과 10만 량의 은을 거란에게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 거란은 북경과 대동을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1005년 조약과 1042년에 개정된 조약은 근 백 년간 평화를 지속시켰다. 송나라 조정은 열등한 지위를 수용하고, 계속 “조공”을 바쳤다.³⁶

송 나라의 인구는 약 8천만에 달했다. 티벳으로부터 몽골 초원지대를 거쳐 만주에 이르는 북방 전 지역에는 대략 5백만 명 정도의 비 한족이 살았다. 난폭한 군 지휘관들이 장악했던 송

³⁴ Rossabi(1983: 5-6)는 “남 중국을 지배한 10 국의 지배자들은 주로 한족이었고, 북 중국을 통치한 5 개 왕조의 지배자들은 대부분 이민족 출신이었다. ... 남 중국의 지배자들은 ‘황제’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북 중국의 국가들만이 중화 제국 전체를 통치하려고 경쟁하였다”고 말한다.

³⁵ Ledyard (1983: 323) 인용.

³⁶ Barfield (1989: 174) 참조. 1042 년의 조약은 형제 관계를 설정 했으며, 매년 바치는 세폐(歲幣)는 은 20 만 량과 비단 30 만필로 증가하였다. Jagchid 와 Symons(1989: 132)는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송이 순순히 매년 막대한 양의 재화”를 거란과 서하(西夏)에게 바쳤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遼史 卷十九 本紀第十九 興宗二 十一年 [1041] 閏月癸未 ... 宋歲增銀絹十萬兩匹 文書稱貢

“양국의 황제들 사이에는 가상적인 혈연관계가 상정되어 한쪽의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양쪽 조정에서 동시에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두 나라는 종종 서로를 “북조”와 “남조”라 칭하였다. Tao Jing-shen (1983: 69) 인용.

정부는, 963년 이후, 과거제도를 통해 대량으로 선발된 관료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정복왕조 세습 귀족의 지휘-감독 아래 한족 협력자인 중앙-지방 관리가 통치하는 제도가, 한족 황제를 모시고,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부유한 상인이나 지주 출신의 사대부 계급이 중앙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통치하는 능력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개봉(開封)에 수도를 둔 북송(960-1127)의 167년간은 중국 문화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 중의 하나였다.³⁷

A.6.1.4. 요-금과 고려(918-1392): 사대주의

Ledyard(1983: 323)는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는 고려는 만주에 있는 북방 영토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소유권을 가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해를 정복한 거란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국 고려는 옛 발해의 압록강 이남의 땅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993년부터 1018년까지 지속된 고려와 요 사이의 일련의 전쟁들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영역 다툼이었다”라고 말한다.

북위는 애당초 고구려와 평화 공존을 했었다. 수-당은 수 많은 전쟁을 치른 후에 발해-신라와 평화 공존을 하게 되었다. 요는 993년에 고려를 공격했지만 청천강에서 저지되었고, 고려가 압록강까지 영토에 편입시키는데 동의를 해 주었다.³⁸ 1005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해 송과의 전투가 종료되자, 요는 1010년부터 10년 동안 고려와 전면전을 벌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010년에는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거란군이 고려를 공격하여 개성을 함락시켰었다. 하지만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거란군은 특별히 얻은 것도 없이 갑자기 철수하였다. 거란은 1018년에 다시 1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으나, 강감찬 장군에 의해 귀주에서 거의 전멸 되었다. 1020년, 고려 조정은 거란에게 더 이상 적대적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이후 양국의 관계는 평화로웠다. 거란에게 철저하게 굴욕을 당한 북송 (960-1127) 조정은 신생 고려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해, 고려와의 통상과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켰다.

거란의 침공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으나, 고려 조정은 대세를 역행하면서까지 전쟁의 참화를 계속 입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1020년, 거란에 “표문을 올려 번국(蕃國)을 일컫고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거란과의 치열한 전쟁 경험이 한반도 지배자들로 하여금 강자를 존중해주는 사대주의(以小事大) 전략을 채택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1126년 1월에 북송 수도 개봉이 금 나라 군대에게 포위 되자 고려 조정은 재빨리 4월에 사신을 금 태종에게 보내 “신(臣)이라 일컫고 표문을” 올렸다. 1020년 이전까지 한반도의 예맥 친족들은 만주의 선비-말갈 족과 수-당을 상대로 대등한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를 보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했었다. 사대주의 전략을 채택한 이후, 전쟁의 참화를 피하면서 국체를 보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거란-여진족들을 상대로 대등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³⁷ Fairbank and Goldman (1992: 88)

³⁸ 992년, 소손녕(蕭遜寧)의 지휘 아래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 침입해왔다. 하지만 서희(徐熙)의 외교적 활약으로, 고려는 거란군을 설득해 자발적으로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까지 고려 영토에 편입시키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거란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옛 고구려 땅에 대한 영유권이 있다는 서희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었다 한다. 실은 당시에 거란이 북송과 아직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고려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Lee (1984: 125) 참조.

전연(前燕, 349-70)은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요서와 요동 지역만을 점령한 다음 북 중국을 공략한 반면에,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켜 만주 전역을 통일한 다음 북 중국을 공략할 수 있었다. “926년 발해의 멸망은, 압록강 북쪽의 강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연고권 주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이다. 발해의 멸망을 전환점으로 한국은 오늘날까지 만주 역사에서 제외 된 것이다.”³⁹

송과 고려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거란과 여진의 개입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송나라 조정이 고려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동파(蘇東坡)를 위시한 대부분의 송나라 대신들은 고려가 ‘만주적’인 특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 상대로는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부필을 대변자로 하는 다른 그룹은, 고려가 만주 세력에 대항하는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 북방의 적들에 대항해 중국적인 문명을 수호하는 한반도의 세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동파 등 주류의 견해가 대세를 결정했다.”⁴⁰ 하긴 부필의 견해는 배불송유-친명반청의 정서가 지배하게 된 조선 왕조에 더 부합 했을 것이다.

“고려는 본래의 영토를 보전하는 동시에 압록강 아래 땅을 추가시킬 수 있었다. 송 나라가 여진족에게 북 중국 전체를 빼앗긴 반면, 고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진족의 침략을 회피할 수 있었다.”⁴¹ 송 왕조는 (북송, 960-1127, 남송, 1127-1279) 계속 남쪽으로 쫓기어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멸망되었는데, 놀랍게도 고려 왕조(918-1392)는 거란의 요(916-1125), 여진의 금(1125-1234), 몽골의 원(1206-1368) 등을 모조리 겪으면서, 이들 모두보다 더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³⁹ Ledyard (1983: 346) 인용. 고려는 고구려-발해 왕조의 잔존 세력들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통적으로 지배했던 압록강 남쪽 영토도 확보하였다. “고려 사람들은 자신들 왕조의 역사적 성격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고려가 고구려의 전통과 법통을 물려받았다고 믿었으며, 일부는 고려가 신라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믿었다. 시조 왕건이 택한 국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명백히 전자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한 세력의 운명은 개경으로 때를 지어 물려든 수 많은 신라 관료들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2세기 전반에 이들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대립을 계속 하다가 결국 신라의 전통이 승리를 했던 것이다.” 압록강 이북 만주 땅에 남아있던 예맥 통구스는 결국에 가서는 여진-만주 통구스에 완전히 흡수 동화 되었다.

⁴⁰ Ledyard (1983: 347) 인용.

⁴¹ Ledyard(1983: 324) 인용.

Appendix 6.2. 거란족의 요(遼)를 대체한 여진족 금(金)

A.6.2.1. 동 만주의 삼림족

금 나라(1115-1234)를 세운 아골타(阿骨打)는 고려와 접경한 산악지대의 완안 부족(完顔部) 지도자 이었다. 아골타는 이미 11세기 중에 다른 생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면서 지배 영역을 확장시켰다. 목초지의 유목민과는 달리, 여진족은 사냥과 고기잡이에 못지않게 농업에 의존했다. 여진족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반 유목, 반 농경) 혼합 경제를 영위했다. 그들 고유의 부족 조직과, 사냥을 통해 숙달된 활 쓰기 말 타기 등은, 주변의 유목민에 손색없는 군사적 전통을 만들어 냈다. 부족 가구들은 세습적 지도자의 휘하에 모여 무리를 이루었다. 여진족들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해야 했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전리품을 얻기 위해, 마치 가족 내 일인 듯, 싸움에 충력을 집중했다. 여진족은 삼림족 이면서도 유목민에 손색없는 기병을 유지했다.

일찍이 모용선비 연 왕조는 북 중국을 통일한 또 다른 선비족인 탁발선비 북위에게 망했다. 700여 년 후, 거란족의 요 나라는 북 중국 전체를 차지한 또 다른 만주족인 여진족에게 망하는 것이다. 여진족은 1126년에 송의 수도 개봉을 포함해 북 중국 전체를 정복했다. 중국 역사상 1127년이란 한족이 만주족 왕조에 의해 두 번째로 중원으로부터 쫓겨 난 사건을 상징한다. 양자강 남쪽 항주에 송 나라의 새 수도가 세워졌다. 1141년, 송 조정은 화이강(淮河) 이북의 전 지역을 정식으로 떼어주고 금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신속(臣屬)하기로 약속했다.⁴² 북 중국을 모두 상실하기 이전의 송을 북송(960-1127)이라 부르고, 남으로 쫓겨난 후의 송을 남송(1127-1279)라고 부른다.

선비족 정복 왕조의 지배 귀족 씨족 출신인 수와 당 왕조의 창건자들은 팽창 정책과 대제국의 위세를 천하에 과시할 수 있었다. “한족 당 왕조”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송 나라는 당의 잔해를 거두어 나라를 세웠으나, 317년에 진 나라 지배자들이 남쪽으로 달아 났듯이, 여진족 금에 의해 중원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송은 달리(大理), 월남 등을 포함 한 수많은 남방 영토를 몽골에게 멸망되기 오래 전에 상실했다.⁴³

여진족 조정은 1153년에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고, 1161년에는 개봉으로 옮겼다. 금 나라 지배자들은 많은 여진족들을 북 중국 정복지로 이주시켜 수비대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세습적인 여진족 군호(軍戶)들은 한족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농토와 노예들을 배정 받았고, 한족들과는 분리되

⁴² 1141년, 25만 량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매년 금에게 바치기로 하고, 남송 스스로가 금의 제후라 선언했다. 남송 황제는 여진족 금 나라의 지배자를 숙부 황제라고 불렀다. Jagchid and Symons (1989: 134-5) 인용.

金史 卷六 本紀 第六 世宗上 五年正月 宋...以國書來...稱『姪宋皇帝』稱名『再拜奉書于叔大金皇帝』

⁴³ Hsiao(1978: 6-7)에 의하면, “8세기가 시작되면서 징집된 병사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용병들은 송대에 와서 절정에 달했다.” 100만이 넘는 용병들은 북송, 남송 양 대에 걸쳐 정부 재정의 80% 이상을 소모시켰으나, 용병의 구성내용을 보면 대부분 굶주린 부랑자, 무위도식 꾀들, 그리고 범죄자들로 채워졌었다.

어 정착시켜졌다.⁴⁴ 하지만 많은 수의 여진족들은 만주에 그대로 남아 전통적 생활을 계속했다.

A.6.2.2. **금사(金史): 완안부 시조는 본래 고려에서 왔다**

고려와 금 나라의 창건자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추적하면서, 모두 옛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천명했다. 왕건은, 비록 영토는 압록강까지 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신생 왕국 이름을 고구려를 본 따 고려라 불렀다. 금 나라 창건자는, 왕건 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실제로 만주 전체를 점거했고, 금사(金史) 본기 제1권을 보면, 완안부 시조(函普) 자신이 본래 고려에서 왔고, (아골타는) 여진과 발해는 한 가족이라고 말한다.⁴⁵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고구려를 단순히 고려라고 기록했고, 발해는 일본열도의 야마토 왕국과의 공식 외교문서에서 자신을 고려라 불렀었다. 금 나라를 세운 완안씨족의 국가수립 이념은 생 여진족을 고구려 사람을 선조로 하는 발해의 유민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⁴⁶

대 금국지(大金國志)는 금 나라의 시조(완안부의 시조)가 본래 신라에서 왔다고 말한다. 만주원류고는, 비록 금사가 금 시조를 고구려 (고려) 출신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요사와 금사는 왕왕 신라와 고구려를 혼동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며, 김(金)이라는 신라 왕들의 성은 이미 수 십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면서 신라 왕성을 본 따 국명을 금이라 한 것이라고 말한다.⁴⁷

⁴⁴ Hsiao(1978: 29)에 의하면, “여진족 병사들은 농경을 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은 농토를 한족에게 소작을 주다가 마침내는 모두 팔아버렸다.” Hsiao(1978: 9)에 의하면, 1187년 호구 조사에 등록된 450만 여진 인구 중 45%가 세습 군호에 속했다. Fairbank and Goldman(1992: 115)에 의하면, 금 나라 때, [노예를 포함해] 여진족은 600만, 요 나라로부터 존속하는 거란족이 400만, 그리고 정복된 북 중국의 한족이 3천500만으로 추계되었다.

⁴⁵ 金史 卷一 本紀 第一 世紀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兄...留高麗不肯從...始祖居完顏部僕幹水之涯 ... 招諭渤海人曰 女直渤海本同一家 蓋其初皆勿吉之七部也

금사는 고구려를 고려라 쓰기 때문에 이 기록의 고려도 고구려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함보(函普)가 900 년경 전후의 인물인 것으로 보면 이 기록의 고려는 고구려가 아니라 신생 고려(918-1392)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조가 편찬한 만주원류고에서는 금사 기록의 고려를 고구려로 간주한다.

⁴⁶ Rogers (1983: 159) 참조.

⁴⁷ 欽定滿洲源流考 卷七 部族 完顏 五代 金史世紀
 金之先出靺鞨氏古肅慎地也...**金之始祖** 初從高麗來 按通考及大金國志云 本自新羅來 姓完顏氏 考新羅與高麗舊地相錯 遼金史中往往 二國互稱不為分別 以史傳按之 **新羅王金姓** 相傳數十世 則金之自新羅來無疑建國之名 亦應取此 金史 地理誌 乃云以國有**金水源**為名 史家附會之詞未足憑耳 居完顏部 卷七 部族 完顏 遼 祥符三年 契丹征高麗道由女真 女真復與高麗合兵拒之 契丹大敗而還 自天聖後屬契丹世襲節度使兄弟相傳 其帥**本新羅人 號完顏氏** 女真服其練事以首領推之自哈富...哈富生... 生...次太祖 次太宗 ...國號大金

卷七 部族 元 ... **金始祖 本從 新羅來** 號完顏氏 所部稱完顏部 新羅王金姓則金之遠派出
 금사 지리지의 보면 금이라는 국가 명칭은 송화강 하류로 흘러 드는 “아시”라는 강의 여진 명칭에

고려 조정에서는 묘청의 고토(故土) 수복 이념이 요즘의 평양인 서경(西京) 이념으로 대변되었다. 한반도 지배만으로 만족하는 무리는 신라 귀족 후손 김부식으로 대표되었다. 1136년, 고구려 법통을 신봉하는 파가 신라 후계자임을 신봉하는 유학(儒學) 파와의 싸움에서 패했다.⁴⁸ 이 싸움에서 유학파의 승리는, 1170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문신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1145년에 완성된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김부식은 고려를 신라의 후계자로 상정하여, 같은 시대의 발해(698-926) 228년 역사를 제외한 채, 통일 신라(677-935) 258년의 역사만을 삼국사기에 첨부했다.

A.6.2.3. 유득공: 발해와 신라를 북조와 남조로 설정

일연(一然), 이규보(李奎報), 이승휴(李承休), 유득공(柳得恭) 등의 글은, 고구려의 정신적 후계자들이, 김부식의 왜곡을 시정하고, 요동을 포함하는 옛 고구려의 만주 강역에 대한 법통을 역사적인 근거로 뒷받침 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⁴⁹

유득공은 고려 조정이 발해와 신라의 역사를 “북조와 남조의 역사”라는 구도로 편찬 하지 못한 사실을 개탄했다.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니,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웅거하여 고구려라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웅거하여 백제라 하였으며, 박-석-김씨가 동남쪽에 웅거하여 신라라 하였다. 이들이 삼국을 이루어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였으니 옳은 일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영

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금 조정은 이 외지고 작은 강 유역에 상경을 설치했었다. Janhunen (1996: 155) 참조. 만주원류고를 편찬한 청 나라 황제들은 명백히 금 나라 시조가 자신들의 직계 선조라고 믿었다.

欽定滿洲源流考 卷首諭旨 上諭頃閱金史世紀云 金始祖居 完顏部 其地有白山黑水...本朝肇興 .. 與大金正同 史又稱金之先出靺鞨部古肅慎地...我朝得姓曰愛新覺羅氏 國語爲金曰愛新 可爲金源同派之證

⁴⁸ Ledyard (1983: 152)는, 신생 고려 왕국의 군 출신 지도자들이 “멸망한 신라의 귀족들이 오랜 기간 체득한 국가 경영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신라인의 정서가 수도 개성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⁴⁹ 1281-3년 기간 중에 편찬된 삼국유사, 이규보가 1193년에 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동명왕(東明王) 편, 이승휴(1224-1300)가 저술한 제왕운기(帝王韻紀), 유득공(1748-1807)이 1784년에 완성한 발해고(渤海考) 등을 참조.

⁵⁰ 柳得恭 渤海考

高麗不修渤海史 知高麗之不振也 昔者高氏居于北曰高句麗 夫餘氏居于西南曰百濟 朴昔金氏居于東南曰新羅 是爲三國 宜其有三國史 而高麗修之 是矣 及夫餘氏亡高氏亡 金氏有其南 大氏有其北 曰渤海 是爲南北國 宜其有南北國史 而高麗不修之非矣 夫大氏者何人也 乃高句麗之人也 其所有之地何地也 乃高句麗之地也 而斥其東斥其西斥 其北而大之耳 及夫金氏亡大氏亡 王氏統而有之 曰高麗 其南有金氏之地則全 而其北有大氏 之地則不全 或入於女真 或入於契丹 ... 渤海爲遼所滅 ... 其忽汗城之破也 世子以下奔高麗者十餘萬人 無其官則必其書矣 ... 建章唐人也 尚著渤海國記 以高麗之人 而獨不可修渤海之史乎

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들이 남북국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의 땅으로, 발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물리치고 이전보다 더 넓혔던 것이다. 김씨가 망하고 대씨가 망한 뒤에 왕씨가 이를 통합하여 고려라 하였는데, 남쪽 김씨의 땅은 전부 거두었지만, 북쪽 대씨의 땅은 모두 거두지 못했다. 일부는 여진족 땅에 편입되기도 하고, 일부는 거란족 땅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 발해가 요 나라에 멸망되었어도 ... 발해 수도 흘한성이 함락되었을 때 고려로 도망해 온 사람들이 세자 이하 10여 만 명이나 되었다. ... 장건상은 당나라 사람이었으면서도 오히려 발해국기를 편찬 했는데, 고려 사람은 어찌 발해 역사를 편찬 할 수 없었던 말인가?